동아일보 - 1936. 05. 31/ 7면/ 2단

國際作家大會의 敎訓

文化實踐에 잇어서의 善意志(三)

朴致祐

다음 이大會가 特別히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大會가 小市民作家의 會合이엿다는 點이다. 數年前까지도 右翼의「이데로로기」와 右翼의 倫理의 可能性을 믿어 왓든 그들이(페르낭데스-「지-드 에의 公開狀」)

數年前까지도 文化의 敵은 會의 精神生活 特히 一般小市民들의 精神生活에 미칠바 啓蒙的 役割이란 實로 尋常치 안흔者가 잇을 것이다.

勿論그러타고 小市民의 全部가 이 運動과 步調를 가치하리라고 想像하는 것은 忘想이다. 이것은 小市民이라는 社會層의 根性을보아 짐작할 수 잇는 일이다. 社會的으로는 이미 그 沒落이 번연히 約束되어잇음에도 不拘하고 政治的으로는 언제나 浮動性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小市民의 根性이니까. 그러나 우리가 만약 여기서 다음과 같은 昨今의 情勢를 考慮에 너흘수만 잇다면 -卽 일즉이 市民의 救濟를 交換條件으로 이에 대한 社會層을 餘地없이 弄絡한「파시즘」이 自身의 正體를 白日下에 暴露하기 始作하엿다는 昨今의 情勢(大資本에의 阿□ 더욱히 突擊隊에 加한「나치스」政府의 壓迫은 그너머나 露骨한 者의 하나일 것이다)를 考慮에 너흘수만 잇다면, 作家大會라는것이 小市民作家의 個人的 良心의 偶然한 一致만은 아니엿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잇음과 同時에 大會는 이러한 意味에서 作家以外의 敏感한 一般小市民들의 今後의 動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有力한 前兆라고도 할 수 잇을 것이다. 事實말이지 各國의「파시스트」政權은 엿태까지 그들의 小市民을 너머나 弄絡해왓다. 오로지 이들 小市民의 피와 땀으로써 오늘의 制□를 가저왓을 터임에도 不拘하고 부질없이「血」「民族」等의「뒤토스」만내세워 異民族 他國家에 對한 敵愾心만 붓돋아 줄뿐으로 約束한 아모러한 手形도 支拂하지 안헛섯다. 이러한 以上 元來利害에 關해서만은 類달리 敏感한 小市民으로서 어찌 이 以上 더 이허울 조흔 파쇼的 夢想에 머르를수 잇으랴. 더욱이 反파쇼

陣營에로 轉換함에 足할 客觀的 諸條件이 이미 充分히 時□되여 잇슴에랴! 作家大會는 이러한 時期에 열렷드니 만침 소시민들의 以上과 같은 心境에 던질바 波紋은 想像以上으로 큼이 잇을 것이다. 大會가 가진 世界史的 意義는 이런 點으로 보아서도 確實이 크다.

그러면 이 大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?

作家와 政治와의 關係의 問題, 作家의「모탈」의 問題, 小市民의 歷史的 自覺에 關한 問題에 關해서는 우에서 이미 말해 왓지만 다음 우리는 文化實踐의「善意志」의 問題 卽 文化의 擁護가 어떠한 立場에서 實踐될 때, 그것은 「善意志」로 評價될 수 잇는가에 對한 問題를 이 運動에서 알어 보기로 하자.